

포스트모더니즘이 현대행정학에 주는 함의

이 병 철

사회과학부 행정학 전공

<요약>

이 글에서는 포스트모더니즘이 가지고 있는 현대적 의미를 현재의 행정학과 연계지위 논의를 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포스트모더니즘이 어떠한 시대적 배경을 갖고 탄생·발전하였으며 포스트모더니즘의 개념적 의미는 어떠한 것인가를 살펴보았고, 그 다음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을 있게 만든 후기실증주의와 후기구조주의에 대한 의미와 논의를 이끌었고 이를 근간으로 하여 포스트모더니즘의 실체적 의미를 살펴보았으며 이것이 현대 행정학에 어떠한 사상적, 이론적, 그리고 방법론적인 함의들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 이를 구체화하여 살펴 보았다.

Implications for Modern Public Administration : Views from Postmodernism

Lee, Byung-Chul
Professor of Public Administration

<Abstract>

Views from postmodernism present interesting questions and challenges to modern public administration. This study argues for the further development of postmodernism of inquiry to deal appropriately with multilateral and complicated modern public administration problems. This does this by outlining themes from public administration and postmodernism. This leads to a series of implications that contemporary public administration thought, theory and method hold for research and practice in modern public administration as it confronts the postmodern era.

1. 글을 시작하면서

21세기를 바라보면서 많은 변화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싫든 좋든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토플러(Alvin Toffler)는 변화라는 것을
미래가 우리의 생활에 침투해 들어오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종전에는 현재를 조명하기 위
해 과거를 연구했으나 이제는 시간의 거울을 한바퀴 돌려 일관성 있는 미래의 이미지도 우
리에게 현재에 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¹⁾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미래와 변화의 수용에 적극성을 갖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20세기 후반기를 특징지어 일컫는 시대사조나 시대를 대변하는 대명사로 자주
회자되는 것들로는 ‘후기산업시대’, ‘후기자본주의시대’, ‘대중적 전자시대’, ‘컴퓨터시대’, ‘불
확실성의 시대’²⁾, ‘단절의 시대’³⁾, 그리고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시대’⁴⁾ 등 다양한 용어들이
있는데 이는 다가오는 21세기가 보다 변화지향적이고 불확실하고 기술지향적이고 전문화
되는 시대가 될 것임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
야 할 21세기는 종전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세계와는 구별이 되는 새로운 역사의 장이 될
것이며 이에 적응하고 생존하기 위해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여야 하고 이에 기반한
생존과 적응노력이 필요로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미래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은 우
리에게 종전의 것을 부정할 필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런 맥락에서 모더니즘(modernism)
적인 사고나 철학 그리고 행태는 새로운 사고나 철학 그리고 행태를 위해 그 자리를 비워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봉착하고 마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미래의 지평을 이끌어갈 시
대적 사조로 대두되어 많은 식자들의 지성적 논의를 이끌고 있는 패러다임이며 20세기 말
의 특징을 부분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다양한 용어들의 내용을 모두 포괄하면서도 많은 사
람들에 의해 미래지향성에 대한 보편적인 인정을 받고 있는 용어가 바로 포스트모더니즘
(postmodernism)⁵⁾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을 전 시대의 사조인 모더니즘의 연속적인 개념으로 보는 견해와 단절로
보는 견해가 있지만 대체로 모더니즘을 배경으로 해서 모더니즘의 문제를 극복해 보려고
하는 시도로써 포스트모더니즘이 이해하는 경향이 일반적인 것 같다. 모더니즘이란 근대주
의 또는 현대주의라고 번역하는 것으로써 넓은 의미로는 교회의 권위 또는 봉건성에 반항
을 하면서 과학이나 합리성을 중시하고 널리 근대화를 지향하는 것을 말하고 좁은 의미로

1) Alvin Toffler, *Future Shock* (New York : Random House, 1970), preface.

2) John Kenneth Galbraith, *The Age of Uncertainty* (Boston, Mass. : Houghton Mifflin Company, 1977)

3) Peter Drucker, *The Age of Discontinuity : Guidelines to a Changing Society* (New York : Harper & Row, 1969)

4) Warren G. Bennis and Philip E. Slater, *The Temporary Society* (New York : Harper & Row, 1968)

5)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용어는 1934년에 스페인의 마드리드에서 출간된 「스페인 및 라틴 아메리카 시선
집, 1882-1932」이라는 책속에서 베드리코 드 오니스가 ‘포스트모데리니시모’라는 말로 처음 사용했으며,
1942년에 더틀리 피츠가 자신이 편집한 「현대 라틴 아메리카 시선집」 속에서 그 용어를 다시 한번 사용
했다고 한다. 이들은 모두 모더니즘 그 자체안에 이미 내재하고 있던 모더니즘의 한계를 미미하게나
마지막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용어는 또한 1947년에 소
머웰이 토인비(Arnold Toynbee)의 「역사의 연구(A Study of History)」를 요약하여 출판했을 때 제1
권에서 사용한 바 있다. 소머웰이 굳이 토인비의 저서속에서 그 말을 사용한 것은 토인비가 “서구와 대
서양권의 지배가 이제 동양과 태평양권의 부상에 의해 새로운 시기로 옮아가고 있다”고 하는 문명사가
적 관점에서 이 말을 인용하였기 때문이다. 얼마후 1950년대에 들어와 찰스 윤순이라는 사람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였는데, 이후로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말의 사용이 가속화되기 시작하
었다고 한다.

는 기계문명과 도시적 감각을 중시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모더니스트들은 인간의 이성과 과학의 힘, 그리고 인간의 도덕성을 믿기 때문에 역사의 진보를 믿으며 인류의 장래를 낙관적으로 보는 낙관주의자들이었으며 이러한 모더니스트들의 자신감과 낙관주의가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산산이 깨어짐으로써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새로운 사조가 대두하게 되는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과 포스트실증주의 그리고 포스트구조주의와 같은 포스트(post-)에 관한 논의가 미국에서 활발히 진행되어 오고 있다. 로티(Richard Rorty)는 미국문화가 모든 문화적 차이와 모순을 수용할 수 있는 가장 발달된 상태에 도달했다고 말하면서 상호경쟁적이고 모순적이기까지한 다양한 문화들을 관류하는 하나의 철학은 존재하지도 않으며 오직 다양한 문화적 표현들만이 있을 뿐이라고 단언한다. 하나의 이름으로 환원될 수 없는 여러 문화들의 차이와 다양성이 미국의 특성이라고 한다면 미국문화는 문자그대로 포스트모던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포스트모더니즘의 논의는 이곳에서는 현실에 대한 철학적 성찰이며 문화적 도전에 대한 철학적 응답으로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사고는 유럽중심적인 사고에 대한 미국의 저항을 내포한다고도 이해 할 수가 있다. 18, 19세기를 풍미했던 유럽중심의 사고에서 이제 미국중심의 사고로 전환되어져야 한다는 의식이 뿌리깊게 배태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는 것이다. 왈도(Dwight Waldo)가 주장한 “더 이상 우리는 유럽식의 국가를 원하지 않으며 또한 유럽식의 국가를 필요로 하지도 않고 유럽식 국가로 발전하려고도 않는다”⁶⁾는 말에서도 이러한 의식의 일면을 읽을 수 있는 것이다. 개인의 자율과 해방이라는 모던적 이념을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체제속의 다원성을 인정한다면 이러한 이념에 회의의 눈길을 보내는 포스트모더니즘은 체제밖의 다원성을 추구한다. 리요따르(Jean-Francois Lyotard), 푸코(Michel Foucault), 로티와 같은 포스트모던 사상가들의 이론이 내비치는 것처럼 차이와 다원성은 21세기로 접어드는 전환기에 부르조아 자유주의가 직면하고 있는 문화적 도전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문화나원주의, 폐미니즘, 환경주의는 모더니즘이 체제에 저항하는 대표적인 포스트모더니즘이 도전으로 볼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이선 체제와 통일성을 폭력과 동일시하는데 이러한 사고는 모두 60년대와 70년대에 발생한 인권운동, 여성해방운동, 환경보호운동과 같은 반문화의 역사적 뿌리를 갖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가의 존재에 대한 회의도 내포되고 있는데 칼(Barry D. Karl)이 주장하듯이 미국인들은 국가의 권위에 대한 대중적 편견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의 꿈(American dream)을 이루기 위해선 국가에 의한 중대한 간섭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⁷⁾ 그는 이런 사고가 바로 미국식 개인주의의 요체라고 이해하면서 따라서 개인적 성취의 관건은 국가가 아닌 개인 그 자신의 손에 달려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⁸⁾ 따라서 포스트모던적 사고에선 국가의 존재에 대한 회의라는 진보적 체제부정론까지 제기되고 있음을 주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이 가지고 있는 현대적 의미를 현재의 행정학과 연계지워 논의를 해보고자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포스트모더니즘이 어떠한 시대적 배경을 갖고 탄생·발전하였으며 포스트모더니즘이 개념적 의미는 어떠한 것인가를 살펴보

6) Dwight Waldo, *The Enterprise of Public Administration* (Novato, CA : Chandler & Sharp, 1980), p. 189.

7) Barry D. Karl, *The Uneasy State : The United States from 1915 to 1945* (Chicago, Ill. : Chicago University Press, 1983), p. 233.

8) *Ibid.*, p. 233.

고 그 다음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을 있게 만든 후기실증주의와 후기구조주의에 대한 의미와 논의를 이끌고 이를 근간으로 하여 포스트모더니즘의 실체적 의미를 살펴보고 이것이 현대 행정학과 어떠한 사상적, 이론적, 그리고 방법론적인 합의들을 가지는지를 구체화하여 살펴보자 하는데 이 글의 목적이 있는 것이다.

2. 포스트모더니즘 탄생의 시대적 배경과 개념적 의미

1) 포스트모더니즘 탄생⁹⁾의 시대적 배경

포스트모더니즘 탄생의 시대적 배경을 알기 위해 우선 그 정신적 배경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근대적 세계관은 합리주의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는 인간의 오성적(悟性的) 사유(思惟)의 합리성에 대한 믿음과 그 사유의 주체인 인간의 자율성에 대한 믿음, 그리고 사유의 도구로서의 언어의 동일성(identity)에 대한 믿음에 그 토대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이미 니체(Friedrich Nietzsche)에 의해 심각하게 비판되었던 근대적 세계관은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다방면에서 공격을 받기에 이르렀는데 먼저 합리적 오성에 대한 믿음은 프랑크푸르트학파의 일원인 호르크하이머(Max Horkheimer)와 아도르노(Theodor Adorno)의 ‘도구적 이성비판’에 의해 그리고 인간의 자율성에 대한 믿음은 프로이드(Sigmund Freud)의 잠재의식의 발견에 의해 그리고 언어의 동일성에 대한 믿음은 빌트겐슈타인(Ludwig Wittgenstein)의 ‘언어게임’이론에 의해 각각 근본적으로 비판을 받게 되었다.¹⁰⁾ 근대적 세계관에 대한 깊은 회의를 표명하는 이러한 이론적 비판과 함께 근대의 종말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킨 것은 서구세계가 20세기에 체험한 일련의 역사적 사건들 때문이었다. 이러한 사건들로는 파시즘과 2차 세계대전을 통한 상처받은 체험 그리고 그 후의 스탈린주의에 대한 뼈아픈 경험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아우슈비츠 등에서 무참히 살육 당한 유태인들, 그리고 연합군의 무차별폭격으로 인한 독일 드레스덴 시민들의 참혹한 죽음, 원자폭탄으로 인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의 수많은 죽음들은 문명과 인간성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을 상실케 하였다.¹¹⁾ 여기에 가세하여 결정적인 타격을 가한 것이 스탈린주의의 체험이었다. 20세기 초의 서구지성들에게 마르크스주의(marxism)는 유일한 역사적 대안으로 받아들여졌으나 잔인한 스탈린주의통치는 유토피아를 지향하는 일체의 이와 관련된 이데올로기가 그릇된 착오에 불과하였다는 인식을 불러 일으켰으며 이에 따라 역사에 대한 신뢰가 회의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핵전쟁의 가능성, 생태학적 재난, 월남전에서의 실패, 마약의 위협 등을 겪으면서 인간의 이성과 과학에 대한 신뢰, 역사의 발전에 대한 서구인들의 신념은 송두리째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다음 사회적 배경을 살펴보면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서구세계는 사회경제적으로도 커다란 변화의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20세기 후반의 서구세계의 사회경제적 특징을 설명하

9) 언제라는 정확한 날짜는 없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포스트모더니즘시대가 일반적으로 제2차세계대전이 후에 나타났다고 하는데 농의를 한다.

10) 김채수, 「21세기 문화이론 과정학」(서울 : 교보문고, 1996), 366-388면.

11) 하버마스(Juergen Habermas)등이 지적하고 있듯이 20세기에 경험한 두 번의 세계대전과 죽음의 수용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두하된 핵폭탄의 재앙은 모더니즘이 품었던 낙관론을 산산히 부서버렸다.

David Harvey,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 (Oxford, England : Basil Blackwell, 1989), p. 13.

고 있는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벨(Daniel Bell)의 '후기산업사회(post-industrial society)'이론¹²⁾과 만델(Ernest Mandel)의 '후기자본주의(late capitalism)'이론¹³⁾을 들 수 있다. 양자는 세부적인 입장은 다르지만 고도의 조직화라는 20세기 후반의 서구사회경제적 양상에 주목하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후기산업사회에서는 자본가대신에 전문가집단이 사회의 지배계급으로 등장하며 개인보다는 소집단들에 의해 사회가 광범위하게 조직화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뿐만 아니라 칼라 T.V., 비디오, 컴퓨터 등 전자대중매체의 발달이 가속화됨에 따라 인간은 기계문명속에서 자아를 소멸시키는 현상을 놓게 되었으며 자아의 분산이나 자아상실의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게 되는 것이다. 에리히 프롬(Erich Fromm)은 '19세기에 있어서의 문제는 신이 죽었다는데 있지만 20세기에 있어서의 문제는 인간이 죽었다'는데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원인을 기계화로 인한 인간의 자아상실에서 찾고 있는 것도 이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¹⁴⁾ 이러한 자아상실의 문제는 새로운 가치관을 필요로하게 되었고 이러한 요구에 호응을 하고 나타난 것이 바로 포스트모더니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2) 포스트모더니즘의 개념적 의미

이 개념은 본질적으로 정의를 내리기 어려운 개념이며 포스트모더니즘이 다원성과 상대성 그리고 비결정성을 기본적인 철학적 입장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포스트모더니즘이 자체가 특징적으로 어느 한 개념으로 정의되기를 거부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포스트모더니즘이 다양한 여러 사상을 내포하고 있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¹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념이 아무리 정의를 내리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용어를 구성하고 있는 의미를 짚어 있게 분석해보면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가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포스트(post-)라는 접두어는 문자 그대로 모더니즘 다음에 오는 시대사조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보드리아르(Jean Baudrillard)같은 일부 학자들은 포스트모더니즘이 그 이전의 모더니즘이 완전한 단절이요 이탈이라고 보고 포스트모더니즘을 탈근대화라고 이해하는 입장도 있다.¹⁶⁾ 그러나 대체로 앞에서도 이미 언급했지만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이 기본입장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동시에¹⁷⁾ 모더니즘의 한계를 초월하고 극복하고자 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서 후기근대화, 후기근대주의라고도 이해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포스트모더니즘은 인간의 이성과 과학의 힘을 믿고 역사의 발전에 대한 낙관적 희망을 갖던 모더니즘 사상이 붕괴됨으로써 20세기 말 인류사

12) 벤은 사회의 발전단계를 전(前)산업사회(pre-industrial society), 산업사회(industrial society), 후기산업사회(post-industrial society)로 구분하고 그 특징을 '자연과의 계임', '제조된 자연과의 계임', '인간들 사이의 계임'으로 각각 정의한다. Daniel Bell,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New York : Basic Books, 1973)

13) Ernest Mandel, *Late Capitalism* (London : Verso, 1978)

14) Erich Fromm, *The Sane Society* (New York : Rinehart & Company, Inc., 1955)

15) 더킨스(David R. Dickens)와 폰타나(Andrea Fontana) 편·김시완 옮김, "사회과학에서 포스트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과 사회논쟁」(서울 : 현대미학사, 1996), 15면.

16) Jean Baudrillard, *In the Shadow of the Silent Majorities* (New York : Semiotext, 1983) ; Jean Baudrillard, "On Nihilism", *On the Beach*, Vol. 6, pp. 38-39.

17) 포스트모더니즘이 전통과의 단절, 불확정성, 과편화, 전위적 실험성, 비역사성과 비정치성 등에 있어 모더니즘이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며 이런 점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이 본질적인 면에서 모더니즘의 논리적 계승이며 발전이라고 볼 수도 있다.

회전반에 나타난 서구문명의 쇠퇴¹⁸⁾와 병적 현상을 극복하고자 하는 시대사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3. 포스트모더니즘과 관련을 가지는 과학적 방법론들¹⁹⁾

1) 논리실증주의(logical positivism)

논리실증주의는 1920년대 카납(Rudolf Carnap)을 비롯한 비엔나학파(Vienna Circle)의 구성원들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모든 의미있는 과학활동을 관찰을 바탕으로 하여 재구성하려고 하였다.²⁰⁾ 여기에서 실증주의²¹⁾라는 말은 원래 '모든 지식은 관찰가능한 현상으로부터 온다'는 콩트(Auguste Comte)의 견해에서 비롯되었으며 '논리'라는 말을 넣붙인 것은 비엔나 학파가 논리학에 의존하거나 또는 언어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논리실증주의자들이 관찰을 바탕으로 한 과학의 통일이라는 목표아래 형이상학을 배격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과학적 진술들과 형이상학적 주장들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었다. 즉 과학적인 것으로서 검증가능한 진술들과 비과학적인 것으로서 검증가능하지 않은 진술들을 구별할 수 있는 검증가능성 기준을 세우는 것이 논리실증주의자들의 중요한 관심사였던 것이다. 논리실증주의의 기본신조는 이 검증가능성 기준을 만족시키는 진술들을 인위적으로 유의미한 진술이라 하여 과학의 진술로서 승인하고 그렇지 못한 형이상학적 진술들을 무의미한 진술들로 배격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후 1930년대로 들어와서는 이러한 논리실증주의에 대한 반발로 비판적 합리주의가 나타났고 또 그러한 과정에서 그 전의 검증을 통한 가설적 연역법은 검증에 대응되는 반증을 통해 유의미성을

- 18) 서양분명사관적 관점에서 볼 때 낙관주의를 피력했던 토인비의 「역사의 연구」와 함께 문명사관의 양대축을 이루는 독일의 역사철학자 오스발트 슈펭글러(1880~1936)의 「서구의 몰락(Der Untergang des Abendlandes)」은 동아시아시대, 태평양시대의 도래가 점차 현실화되는 시점에서 탈서구문명의 미래적 지향을 예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체에 대한 공감을 표시하면서 포스트모더니즘적 시각에서 새로운 의미를 가지는 역작으로 이해되고 있다. 슈펭글러는 이 책에서 서구문명의 몰락을 예언해 지극히 비판적인 전망을 하였다. 또한 그는 괴테와 나체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세계사를 9개의 유기적인 문화권의 흥망성쇠로 설명하면서 서유럽과 미국문명도 흥망성쇠의 사이클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단연함으로써 8개의 문화권과 마찬가지로 서구문화권(AD 900~2400)도 결국 쇠퇴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오스발트 슈펭글러(서)·박광순(역), 「서구의 몰락」(서울 : 범우사, 1995)
- 19) 여기에서 논해지는 후기실증주의와 후기구조주의방법론에 대한 논의는 화이트(Jay D. White)의 깊은 통찰력있는 이해와 설명이 담긴 아래 논문에 근거하고 있음을 밝힌다. Jay D. White, "Knowledge Development and Use in Public Administration : Views from Postpositivism, Poststructuralism, and Postmodernism", in Mary Timmey Bailey, and Richard T. Mayer (eds.), *Public Management in an Interconnected World : Essays in the Minnowbrook Tradition* (New York : Westport, Connecticut : Greenwood Press, 1992), pp. 162~169.
- 20) 논리실증주의자들은 철학은 지적 활동이고 그 지적 활동의 성과는 일련의 철학적 명제가 아니고 그 명제의 의미를 명료하게 하는 것에 있다고 믿었다. 다시 말해, 논리적 실증주의는 세계나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나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명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 김재수, 「방법론과 과정학」(서울 : 세손출판사, 1994), 22~23면.
- 21) 실증주의는 현상에 대한 정확한 묘사와 설명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어떤 행동에 기초가 되는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현실적 이론(substantive theory), 디자인 과정에 대한 과학적 묘사와 설명에 관한 과정적 이론(procedural theory), 그리고 이 둘을 합친 방법론적 이론(methodological theory)의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런 극도의 실증주의는 단지 사실적인 자료만이 합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고가 비판을 받고 있다. 즉 기세주의적인 사고는 수학·과학적인 설명에 의존하고 있는 사실들만을 고려하고 상상적인 시각이나 관찰자의 가치가 개입된 평가나 형이상학 등의 측면은 배제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찾으려는 소위 반증주의로 변환해 나왔다. 즉 포퍼(Karl R. Popper)는 제한된 수의 관찰기술로부터 보편적 진술을 도출해 내려고 하는 귀납의 원리를 비판하면서 입증 개념을 반증 개념으로 대체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그는 과학법칙의 참과 거짓의 여부는 제아무리 많은 입증자료를 제시하여도 여전히 확인되지 않은 또 다른 영역이 남아 있기 때문에 유한한 관찰에 의해서 판단될 수는 없지만, 그 법칙을 부정하는 관찰이 나타날 때에는 반증될 수 있다고 하는 새로운 김승기준을 제시했다. 이로 인해 한 지식이 과학적 지식인지 아니면 비과학적 지식인가 하는 것은 반증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이다.²²⁾ 그러나 이러한 반증주의는 1960년대로 들어와 반증을 위한 확실한 관찰방법이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 제시됨에 따라서 그 입장이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논리실증주의자들의 반증주의의 한계성은 구조주의적 입장에 의해 극복되어 나갔다.²³⁾

2) 후기실증주의(Postpositivism)

최근에 과학철학의 후기실증주의적 진전은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에 있어 지식의 개발과 유포 그리고 활용에 실증주의에서는 찾아 볼 수 없었던 화법²⁴⁾과 이야기하기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진전으로부터 세가지 주제가 지식의 화법적 이론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⁵⁾ 이 세주제는 우선 소여성(gegebenheit)을 배척하는 것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 주제는 경합되는 이론들 간의 합리적 선택의 기준으로써 실제적 담론을 인정하는 것이며 마지막 주제는 과학의 인간화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선 소여성은 과학의 실증주의적 개념의 초석을 이루는 것으로 실증주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과학의 독립성이 존재해야 한다는 믿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믿음은 탐구의 목표와 기타 형이상학적인 이론의 형성을 제치고 실증적 이론의 형성만을 받아들이는 기준으로써 기여하였다. 이러한 시각에선, 이론은 단지 사실의 객관적인 관찰을 위한 도구, 다른 말로 말해서 이론은 자연을 반사하는 중립적인 거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²⁶⁾ 그러나 건넬(John Gunnell)에 따르면 논리실증주의자들은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주장들과 이론들을 판단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과 지식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는데 있어 원초적이고 권위적이며 자기

22) 1950년대에 들어와서 카납은 초기에 자신이 주장했던 엄격한 입증주의를 완화시켜 확률적인 확증주의를 도입하게 되면서 지나치게 관찰에 집착하는 초기의 강한 실증주의적 경향에서 어느 정도 후퇴하게 된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을 논리실증주의와 대비시켜 논리경험주의라고도 부른다. 그러나 확실한 경험적인 기초를 토대로 해서 과학의 전체분야를 통일한다는 카납을 비롯한 소위 논리실증주의자들의 본래의 기본적인 입장에는 변화가 없었다.

23) 특히 과학적 방법론에 관한 연구분야에 있어서의 이러한 구조주의적 입장은 퀸(Thomas S. Kuhn)의 '과학혁명의 구조(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와 라카토스(Imre Lakatos)의 '반증과 과학연구프로그램의 방법론(Falsification and the Methodology of Scientific Research Programmes)' 등을 통해서 성립되어 나왔다.

Thomas S. Kuhn,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 (Chicago, Ill.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2); Thomas S. Kuhn, *The Essential Tension* (Chicago, Ill.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7).

Imre Lakatos, "Falsification and the Methodology of Scientific Research Programmes", in Imre Lakatos & Alan Musgrave (eds.), *Criticism and The Growth of Knowledge* (Cambridge,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0); 김채수, 「앞의 책」 (1996), 354-356면.

24) 다른 사람의 말이나 생각 또는 자기가 다른 때에 한 말이나 생각을 말하는 이(필자)의 입장에서 듣는 사람(독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화법이라고 한다.

25) Jay D. White, *op. cit.*, pp. 162-165.

26) *Ibid.*, p. 162.

변명반을 내세우는 그런 인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데 실패를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소여성을 신화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두 번째로 사실들과 이론들에 적용되는 진리의 합의이론은 이런 소여성을 대체해버린다. 과학적 사실들은 독립적으로 객관적이기 보다는 과학자사회의 다수 과학자들에 의해 동의되고 합의된 오히려 그들에 의해 잘 정립된 개념들에 불과하다는 것이다.²⁷⁾ 이론들이 자연이나 사회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거울이라고 말하는 것은 신념에 관한 문제인데 헤세(Mary Hesse)가 주장하듯 어떤 과학철학자의 눈에 비친 이론들은 단지 신화나 은유나 이야기들에 불과한 것이다.²⁸⁾ 왜냐하면 사실들은 합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론들 역시 합의의 문제이며 이들 간의 관계역시 과학자들간의 합의의 문제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과학지식이 과학자들간의 합의를 통해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주장을 어떤 과학자들은 과학의 가치를 부정하는 반과학주의로 또는 객관적 진리를 부정하는 비합리적 주관주의로 매도를 한다. 그러나 사회적 구성이란 과학적 지식이 과학자사회의 상호작용의 산물인 사회적 규약(과학적 개념, 이론, 방법, 실험기법, 관찰결과의 평가 등에 관한)을 통한 합의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며 따라서 이 규약은 과학자들이 자연을 관찰하고 해석하는 창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규약은 해당 과학자사회가 속한 시대와 문화에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그 영향하에 있는 본질적으로 협상적이고 문화적인 성격을 지닌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구성론에서도 자연이 과학지식의 구성에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다만 자연은 여과과정없이 과학지식에 반영되지는 않으며 항상 사회(과학자사회의 규약 및 이와 연관된 거시적 사회문화)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선택적으로 지식화된다는 것 뿐이다. 따라서 사회적 요인의 영향은 예외적 사건이거나 외부적 오염이 아니라 자연과 더불어 항상 과학지식을 구성하는 본질적 구성요소라 볼 수 있다. 따라서 협상적이고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성격을 부정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진리의 합의이론은 서로 경합되는 이론들중에서 어떤 이론을 어떻게 고르느냐 하는 문제를 갖게 된다. 만약 나타난 것이 사실의 객관적 영역으로 볼 수 없다면 다시 말해 협상적이고 문화적인 성격을 갖게 된다면 이럴 경우 어떻게 한 특정화된 이론은 다른 이론들에 반해 연구상태에 있는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으로 선택될 수 있단 말인가? 번슈타인(Richard J. Bernstein)은 이런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은 회피한채 과학은 상대적이고 비합리적인 노력도 행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적당하지만 우회적인 대답으로 실제적 담론을 제시하였다.²⁹⁾ 여기에서 실제적 담론이란 자신들이 연구하는 것에 대해 공통적인 이해를 어느정도 공유하고 있는 연구자집단간의 지속되는 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화를 통해 아이디어들과 개념들, 이론들 그리고 패러다임조차 겹증과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담론에 참여한 자들은 훌륭한 이론을 구성하기 위한 공개적인 기준을 여러 각도에서 적용도 해보고 이에 따른 시각차이와 결과해석의 차이 그리고 공통점들에 대해 논쟁도 하고 숙고도 하고 설득도 하고 상상도 하고 해석도 한다. 물론 이에 근거하여 문제가 된 이론을 배척하거나 수용을 한다.³⁰⁾ 실제적 담론들은 지식을 정립하고 전달하는데 있어 의사소통의 역할을 강조하며 의사소통

27) *Ibid.*, p. 162.

28) *Ibid.*, p. 163.

29) *Ibid.*, p. 163.

30) 번슈타인은 하버마스(Juergen Habermas), 헤세, 쿤(Thomas S. Kuhn), 로티, 가다머(Hans-Georg Gadamer), 아렌트(Hannah Arendt)같은 유명한 과학철학자들에 의해 제공된 많은 아이디어들 가운데 공통성과 평생성 그리고 유사성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 과학적 합리성의 이해에 도달하였다. *Ibid.*, p. 163.

은 당연히 논쟁을 내포한다. 이론들은 단순히 공포되는 것이 아니라 이론이 연구자사회에 수용되기 위해선 이론을 뒷받침하는 논리가 논쟁을 통해 그리고 심지어는 기존이론의 반박을 통해 정당성을 인정받아야만 한다. 보다 나은 논쟁의 힘을 수용하기 위해선 다른 말로 하자면 수용토록 설득하기 위해선 화법과 이야기기술의 혼란한 사용없이는 불가능하다.³¹⁾ 논리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궁극적으로는 어떤 기준에 호소를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³²⁾ 따라서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에서 이론을 수용하거나 배제하는 것은 진행되고 있는 실체적 담론에 의존하며 전통적으로 이것은 가치에 대한 논쟁의 영역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세번째로 집고 넘어가야 할 후기실증주의의 주제는 과학의 인간화인데 이것은 자연과학의 논리와 사회과학의 논리가 서로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면서 서로의 모형화과정을 이루워나간다는 믿음이 있는데 이것은 예술, 역사, 언어학, 시학, 문학비평 그리고 문학비평과 같은 분야를 내포하는 문화과학의 논리와 매우 유사한 것이다.³³⁾ 전통적으로 자연과학은 정확하고 정교하고 통렬적이면서 엄격하고 선형적인 귀납이나 연역의 논리를 따르는 관찰언어를 사용하여 객관적인 자료나 사실들을 설명하는 것으로 생각해 왔다. 이에 반해 문화과학은 가치나 선호, 그리고 순환논리를 따르는 이론적 언어를 사용하여 주관적인 자료를 해석하는 것으로 생각해 왔다. 그래서 문화과학의 과학적 타당성은 항상 의문시되었다. 헤세는 자연과학에 대한 이러한 전통적 견해가 거의 일반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것이며 가장 중요한 방법에 있어선 자연과학과 문화과학이 반드시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유사하다는 점을 주장하였다.³⁴⁾ 그렇다고 해서 과학의 인간화가 과학적 성공에 대한 비판에서 나오는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여러모로 자연과학이 문화과학과 같은 방법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며 자연과학적 지식이 문화과학적 지식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주는 것이다. 사실상, 문화과학은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을 어떻게 잘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에 해답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훌륭하고 풍부한 정보의 보고(寶庫)인 것이다. 이러한 타학문에 대한 과학의 우위성에 대해 이를 제기하는 견해는 페일러아벤트(Paul Feyerabend)의 주장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그는 다른 형태의 지식들과 비교해 보아도 체계적 질서를 추구한다는 과학이 결코 다른 학문보다 더 우월하다고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과학의 속박에서 사회를 해방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과학적 방법론 뿐만 아니라 모든 나름대로의 방법

31) *Ibid.*, p. 164.

32) 논리실증주의자들은 이론들간의 선택을 위한 기준은 표준적이고 일반적이라고 믿었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모든 지식의 형성은 고정된 불변의 기준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단순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것이었다. 기준이 존재한다해도 이것들이 그들이 생각한 것처럼 표준적이고 일반적인 것은 아니었으며 기준이라 믿었던 것도 실상은 특정한 과학적 사회에서 지지되고 합의된 가치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눈에 따르자면 대부분의 공통적인 가치는 정확성, 일치성, 범위, 단순성, 그리고 종족성이며 기타 다른 가치들은 지역적 수준에서 그리고 경합되는 이론들에 대한 측은 논쟁의 범위안에시만 이론선택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되었다는 것이다. 가치들은 과학자들에 따라 다르게 가중치가 부여되었으며 이것이 과학자간의 갈등을 가져오게 하였다. 이론의 수용은 이론에 의해 제공되는 증거나 진짜 뿐만 아니라 이론에 내재하고 있는 배경적 가치를 그 이론이 얼마만큼 잘 소화시키고 종족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 등을 포함하여 다른 과학자를 어떻게 잘 설득해낼 수 있느냐 하는 과학자의 설득 및 호소능력에 달려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저 이론보다는 이 이론이 더 가치가 있다고 과학자사회를 설득하는 과정은 효과적인 화법과 이야기하기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Ibid.*, p. 164.

33) *Ibid.*, p. 164.

34) ‘자료는 이론에서 분리할 수 없다’라는 말이나 ‘이론은 사실 그 자체가 보여지는 방법이다’라는 말, 그리고 ‘자연과학적 언어는 되돌릴 수 없는 은유적이며 부정확한 것이다’라는 말 등은 모두 이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며, 과학은 이론적 해석을 통해 이해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른말로 하자면 자연과학의 논리는 문화과학의 논리와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이다. *Ibid.*, p. 165.

론 모두는 그 나름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방법을 취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이다. 파이어아벤트의 이러한 다원주의적이고 무정부주의적인 과학관은 리요따르를 비롯한 포스트모더니즘 이론가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 본 주어짐의 신화를 거부하는 것이나 이본선택에서 실제적 담론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중시하는 것이나 과학의 인간화 등은 지식의 화법적 이론을 위한 과학철학내로부터의 논리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다.³⁵⁾ 문화인류학에서 게르츠(Clifford Geertz)는 몇 년동안 실증주의적 아이디어를 지키려고 노력했으나 결국 이것을 포기해버렸다. 이와 같이 많은 저명한 사회과학자들은 실증주의적 사회탐구에 대해 낙담하였으며 그들이 행할 논리를 표명하기 위해 해석을 시도하는 쪽으로 돌아서고 말았던 것이다.

앞에서 논의된 주제에 비추어 볼 때, 화법과 이야기하기가 지식의 개발, 의사소통, 그리고 지식의 수용에 중요함은 명백해졌다. 그러나 아직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논리실증주의자들은 모든 지식이, 심지어는 과학적 지식조차 화법적 지식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³⁶⁾ 이 점을 받아들이기 위해선 과학은 왜 그 일이 그런 방식으로 되었는가와 만약 우리가 그 일의 방식을 바꾸려 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설명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한 하나의 소스(source)에 불과할 뿐이라는 점을 이해하여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지식에 대한 포스트모더니즘적 견해이며 후기구조주의적 시각인 것이다.

3) 구조주의(Structuralism)

구조주의는 1950년대와 60년대 프랑스 지성계를 풍靡하면서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사조이다. 인간주체와 의식을 강조한 사르트르(Jean Paul Sartre)의 실존주의에 환멸을 느낀 젊은 소장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나타난 지적 사조로서 구조주의라는 명칭은 세계의 중심은 인간이 아니라 언어구조와 무의식의 구조라는 외침에서부터 유래된다.³⁷⁾ 사르트르는 『존재와 무』를 통해 인간의 존재를 의식에 해당될 수 있는 “즉자(en-soi)”와 세계를 의식 대상에 해당될 수 있는 “대자(pour-soi)”와의 결합물로 보아야 된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공시적 접근을 통해 파악한 존재의 본질을 통시적 측면에서 재접근하였다.³⁸⁾ 그러나 1950년대 들어서면서 인간의 의식현상을 통해서 인간의 존재본질을 파악하려는 현상학과 실존주의의 접근방법에 대해 서서히 비판이 일기 시작하였고 특히 실존주의의 통시적 측면에서의 인간존재의 접근방법에 대해 비판이 가해졌다.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의 언어학적 방법을 토대로 한 구조주의가 성립된 것도 이때를 전후해서이다. 소쉬르의 저서 『일반언어학강의』가 나온 뒤 언어를 구사하는 인간을 배제한 채 언어체계의 기호와 코드, 구조를 연구하듯 인간과 사회 현상도 구조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믿음이 확산되었으며 이는 구조주의적 접근의 기반이 되었다. 이와같이 구조에 대한 관심은 모든 사물의 본질을 통시적 측면에서 파악하려는 19세기 역사주의에 대한 반발로부터 출발했는데 20세기 이후 사물에 대한 구조주의적 접근방법은 사물들의 공시적 관계를 통해 그 본질을 파악하려 했던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인문사회과학에서 지리학 등을 기초로 사회학, 언어학, 문화인류학 등을 통해 확립되었다. 과학적 연구에서 구조주의적 입장이란 어떤 대상을 과학적으로

35) *Ibid.*, p. 165.

36) *Ibid.*, p. 165-166.

37) 프랑수아 도스 지음·이봉지 등 옮김, 『구조주의의 역사』 (서울 : 동문선, 1998)

38) 김재수, 『앎의 책』 (1996), 110면.

연구하여 그것으로 부터 취해 낸 이론을 구조로 파악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학사의 연구를 통해서 과학적 진보를 파악한 것은 어떤 이론이든지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존재한다는 입장은 통해서 그리고 라카토스의 경우는 그러한 패러다임에는 하나의 견고한 핵이 존재한다는 입장은 통해서 이론을 구조로 이해했던 것이다.

구조주의는 널리 알려진 세계관이다. 모든 현상은 불변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특정현상의 다양한 요소들은 구조의 용어로 설명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³⁹⁾ 예를 들어 화학분석가가 분자를 조사할 때 그들은 분자의 구성요소 뿐만 아니라 구성요소들이 다른 구성요소들과 서로 어떻게 관련을 갖고 있는지를 검증한다. 요소들간의 결합된 관계는 분자의 구조가 되며 이런 구성요소들의 행태는 그들의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다. 성(T. K. Seung)은 유클리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데카르트이래로 어떻게 구조분석이 과학적 탐구의 중심이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⁴⁰⁾ 1945년 초에 카시러(Ernst Cassirer)는 구조주의가 과학적 연구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후에 피아제(Jean Piaget)는 총체성, 자기규제, 그리고 변형 등과 같은 구조주의개념이 인류학, 언어학, 수학, 물리학, 생물학, 심리학, 철학분야 등에서 광범위하게 발견되는 것을 관찰하였다.

구조주의의 일반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결으로 드러난 외양보다는 그 근저에 숨어 있는 공동된 체계나 법칙이나 를 찾으려고 노력하며 둘째, 구조주의는 보편적인 구조, 법칙을 찾아내고 수립하려는 과정에서 스스로 경직된 과학적 이론이 되고 말았으며, 인간의 모든 행위의 기본이 되는 어떤 규칙이나 틀을 찾아내려는 과학적 태도를 갖고 있음으로써 놀 인간을 규격화하고 조직화하며 패턴화하려는 위협적인 존재로서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다. 셋째, 구조주의는 하나의 구조, 하나의 체계를 분리해 내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역사를 무시하는 비역사적 태도를 보이게 되며 넷째, 구조주의의 이와 같은 태도는 모든 것을 객관화시키는 비인본주의적, 비실존주의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구조주의자들에 의하면 인간의 사고 역시 하나의 고정된 틀속에서 생성되고 기능하는 것 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구조주의에 의하면 구조는 모든 것의 기원이나 센터가 되며 개체에 대해 특권을 부여받은 존재가 된다고 한다.⁴¹⁾ 그러나 이와 같이 이론을 구조로 파악해 보려는 입장들도 파이어아벤트의 「방법에 대한 도전(Against Method)」⁴²⁾ 등이 출판됨으로써 그 한계성이 지적되게 되었다.

4) 후기구조주의(Poststructuralism)

1960년대 후반부터 서구에서 발달된 구조주의는 유럽중심의 산물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전세계적인 보편적 개념이 될 수 없다는 비판과 함께 후기구조주의가 새로운 흐름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⁴³⁾ 이와 같은 후기구조주의 사상은 정각기호인 말을 기초로 구축된 구

39) Jay D. White, *op. cit.*, p. 166.

40) *Ibid.*, p. 166.

41) 윤호병 외, 『후기구조주의』(서울 : 고려원, 1992), 11·14면.

42) Paul Feyerabend, *Against Method : Outline of an Anarchic Theory of Knowledge* (London : Verso, 1975)

43) 후기구조주의는 프랑스의 5월 혁명 이후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유럽중심주의를 기치로 결고 시민들을 억눌러 온 드골리즘에 반기를 든 많은 진보적 학생들과 지성인들은 이 혁명을 계기로 현재 후기구조주의의 특징들로 얘기되는 탈유럽중심주의, 탈서구적 이성중심주의, 다원주의적 시각을 확립하였고 그러한 시각하에서 세계와 인간 본질을 파악하려는 작업들이 추진된 결과 1970년 초부터는 그러한 입장에서 많은 연구업적들이 뛰어져 나오게 되면서 구체화 되어 갔다.

조를 해체시키고 시각기호 다른 말로 하자면 문자나 문자이전의 자연물들의 모든 표현형식들을 기초로 하는 새로운 구조를 만들자는 움직임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이것이 후기구조주의의 기반을 형성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하여야 할 점은 후기구조주의가 구조주의의 단순한 연장도 아니며 동시에 그것의 완전한 배제도 아니라는 점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후기구조주의는 구조주의 밖에서 시작되었다가 보다는 오히려 그 내부에서 스스로의 잘못을 발견한 사람들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보는 편이 더욱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⁴⁴⁾ 이러한 양면적 속성을 지니는 후기구조주의의 기본적 속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적인 구조보다는 개체의 존엄성과 자유를 인정하며 둘째, 사고의 경직화 및 학문의 과학화를 배격하며 이성중심의 태도를 저양하고 셋째, 역사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역사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표명하며 과거를 향수가 아닌 탐색의 대상으로 취급할 뿐만 아니라 넷째, 절대적인 진리의 독선과 횡포를 기부하며 이분법적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여 타자(他者)를 인정하고 포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속성외에 철학에서의 후기구조주의는 신니체주의자들의 사상들을 함축하고 있으며 그 특징은 우선 대카르트 아래 근대정신을 지배해 온 이성적 주체를 부정하는데서 출발한다. 그들은 이성적 주체, 의식적 자아의 개념보다 의식으로부터의 이탈과 이성으로부터의 탈중심화를 중요시 한다. 둘째, 후기구조주의는 체계화, 총체화에 반대한다. 그들은 총체성을 지향하는 모든 거대구조, 예를 들어 혜겔의 절대신이나 마르크스의 인간해방과 같은 거창한 이야기는 모더니즘이 낳은 결과로 보고 이를 거부한다. 셋째로 후기구조주의는 과학주의를 비판한다.

후기구조주의로부터의 몇몇 주제들은 서식의 화법적 이론에 초점을 모아진다. 후기구조주의자들이 문화과학의 철학적 기반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교과서나 상징체계의 해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주관성과 언어의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된다. 주관성과 언어는 후기구조주의적 사상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⁴⁵⁾ 이것은 라캉(Jacques Lacan)의 심리분석과 언어학⁴⁶⁾ 그리고 테리다(Jacques Derrida)의 언어학과 문학비평⁴⁷⁾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⁴⁸⁾ 라캉은 프로이드이론의 생물학적이고 기계적인 기반위에 생리적인 퇴행주의를 구축함에 의해 심리분석에 있어 주요한 공헌을 하였다. 라캉은 인간이 생물학적이라는 점을 부정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는 생물학적인 존재가 언어를 통한 주관에 의해 해석이 되어진다고 주장을 하였다. 라캉은 소쉬르가 제창한 언어의 구조적 이론을 재구축하였다.⁴⁹⁾ 이것은 실증주의의 그것과 유사한 가정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소쉬르는 언어를 기호와 신호들의 집합이라고 보았다.⁵⁰⁾ 물론 이러한 각개의 기호들은 단순하게 의미

44) 윤호병 외, 「앎의 책」, 14-15면.

45) Jay D. White, *op. cit.*, p. 167.

46) Jacques Lacan, *The Language of the Self : The Function of Language in Psychoanalysis*, Translated by Anthony Wall (Baltimore, MD :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68)

47) 테리다의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의 글들을 참고 할 수 있다.

Jacques Derrida, *A Derrida Reader : Between the Blinds*, Edited by Peggy Kamuf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1); Jacques Derrida, *Dissemination*, Translated by Barbara Johnson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1); Jacques Derrida, *Writing and Difference*, Translated by Alan Bass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8); Jacques Derrida, *Of Grammatology*, Translated by Gayatri Spivak (Baltimore, MD :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6)

48) Jay D. White, *op. cit.*, p. 167.

49) Jacques Lacan, *Ecrits*, Translated by Alan Sheridan (London : Tavistock, 1977)

50) Jay D. White, *op. cit.*, p. 167.

를 받아 들이는 것(세계내에서 뭔가를 재현하는 정신적·개념적 요소를 의미함)과 의미를 주는 것(청각음향적 요소로 이해할 수 있음)들로 구성이 된다.⁵¹⁾ 언어에 대한 구조주의자들의 견해는 의미를 받아들이는 것이 의미를 주는 것을 지배하고 결정한다고 한다. 기호들은 어떤 언어를 구성할 때 의미를 주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 간의 구조적 관계가 가정과 실제간의 일 대 일(1 : 1) 대응방식을 허용하는 것으로 가정을 하는 것이다. 의미를 주는 것에 대해 의미를 받아들이는 것의 지배성은 이론에 근거하여 사실을 객관화시키고자 하는 실증주의자들의 견해와 일치하는 것이다.⁵²⁾ 가정과 실제간의 이러한 일 대 일 대응성은 보다 고대의 고전적인 실증주의자들의 주장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즉 그들은 이 우주에 어떤 것을 지칭하는 단어는 그것에 딱맞는 단 한가지 말 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과학자가 할 일은 이런 단어들을 발견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라캉은 기호들의 구조적 관계의 해석을 이와는 다르게 함으로써 실제와 가정간의 일 대 다수의 대응성을 낳게 하였고⁵³⁾ 그래서 실제에 대한 많은 가정들이 존재할 수 있게 하고 실제에 대한 해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나갈 수 있게 하였다.⁵⁴⁾ 데리다의 언어이론은 라캉의 것보다 더 전보적이며 구조주의자적 견지에서 논리실증주의에 대해 보다 더 비판적이다.⁵⁵⁾ 데리다는 기호에 대한 안정적인 의미가 없는 결과로 인해 의미를 주는 것과 받아 들이는 것이 지속적으로 나누어졌다가 다시 새로운 조합으로 재결합을 한다고 믿었으며 정말로 기호의 의미는 완전히 다른 시점에서 완전히 다른 의미로 급속히 변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었다. 언어에 있어서 이것은 가성들이 앞에서 말한 일 대 일 대응성과는 상반되는 다수 대 다수의 대응성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면도 있지만 이론적 가성들이 탈언어적 실체를 갖지 않음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후기구조주의의 주제들은 논리실증주의에 대해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에 서는 것이며 실증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후기구조주의는 후기산업주의, 후기역사주의 등과 마찬가지로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이론이나 시각은 다르지만 다양성, 다원적인 원리에 의해 기능하는 사회 또는 기술 및 기술지배에 대한 주제를 서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응호자로 일컬어지기도 하는 것이다.⁵⁶⁾

4. 포스트모더니즘의 실체적 의미

포스트모더니즘은 하나의 사회적 경향이며 문화과학에 있어서의 지적 운동이다. 일반적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은 우주적이고 일반적인 진리, 아름다움, 그리고 정의로 표현되는 유럽식의 계몽주의적 전제가 현대사회에서 실현되지 않았다고 믿고 있다.

리요따르에 따르자면 전통적 사회에 있어서 지식은 이야기, 신화, 우화, 전설 등과 같이 화법적 형태를 띠며⁵⁷⁾ 이러한 화법의 초기형태는 구술되어진 것이지만 뒤에는 문자로 바

51) 언어학적인 기호에 있어서 의미를 받아 들이는 것은 예를 들면 개념으로써의 의자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의미를 주는 것은 실제세계에 존재하는 의자이다.

52) *Ibid.*, p. 168.

53) Jacques Lacan, *op. cit.*, pp.154-157.

54) Jay D. White, *op. cit.*, p. 168.

55) *Ibid.*, p. 168.

56) 차인석 외, 「사회철학대계 3 : 사회원리에 관한 새로운 모색들」(서울 : 민음사, 1993), 261-262면.

57) Jean-Francois Lyotard, *The Postmodern Condition : A Report on Knowledge*, Translated by Geoff

뀌었다 한다. 이야기들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믿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알으켜 주었으며 이야기를 통해 전달되는 규칙들은 사회적 결속을 강화시켰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결속력이 강한 사회집단들이 공통적인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어가지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다. 이야기들은 이것들을 선포하는 기관들, 예를 들면 교회나 국가 등에게 정통성을 부여해 주었으며 이야기는 또한 진리, 정의 그리고 아름다움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는 기준을 제공해 주었다.⁵⁸⁾ 그러나 현대사회의 주요특징은 과학적 지식의 성장인데 이 과학적 지식은 사회적 실제를 지도하고 이끄는 이야기나 신화, 우화, 전설들과 같은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이해되었으나 비트겐슈타인의 영향을 반영하면서 리요따르는 과학 역시 이야기의 다른 유형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리요따르는 과학적 지식은 그 자체로 언어게임으로 근본적으로 언어게임에 근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리요따르는 과학적 지식은 그 자체로 언어게임을 수행하고 있으나 그들은 형평과 불평등을 구별하는 것이 가능한 선형적인 언어게임은 사용하지 않으며 능률과 비능률이란 진술간의 차이를 구별해 주는 규칙을 제공하는 기술적인 언어게임도 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⁵⁹⁾ 리요따르는 과학적 지식은 사회에서 정당화된 이야기지식과 부합된다고 주장한다. 그에겐 포스트모던시대의 주요특징은 예술, 도덕 그리고 과학의 영역이 완전히 분리되고 자율화되는 것이며 이것들이 각기 그 자신의 언어게임을 갖게 되는 것이다.⁶⁰⁾ 그리고 그는 현대사회의 또 다른 특징으로 큰 이야기(grand narratives or grand recits of modernity; Große Erzaehlung)의 존재를 들고 있다.⁶¹⁾ 큰 이야기란 신념체계를 형성하고 개별적 혹은 집단적 행동을 지도하는 것으로 현대서구사회에서는 서로 다른 큰 이야기를 채택했었다. 이런 것들로는 정신의 변증법(헤겔철학), 의미의 해석학(프랑스의 협상학이거나 존재론), 합리적이거나 실행되고 있는 주제로부터의 해방(마르크시즘), 혹은 부의 창출(자본론) 등을 들 수 있다. 자연적이거나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과학의 힘에 기대려는 신념은 그것 자체가 큰 이야기이다. 베거(Peter L. Berger) 등이 지적한 현대사회의 주요특징들인 기술적 합리성, 관료적 행정국가, 다원적 정치 등도 큰 이야기로 볼 수 있는 것이다.⁶²⁾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에선 한때 큰 이야기들을 믿었던 사람들의 삶에 있어 무의미성과 상실감을 갖게 함으로써 큰 이야기가 가지고 있던 정통성의 힘을 봉괴시키는 것이다. 더 이상 무력화된 큰 이야기는 사회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없게 만들었다. 리요따르는 포스트모던시대에선 큰 이야기를 대신해 사상과 행동을 이끌기 위한 부분적이고 작

Bennington and Brian Massumi (Minneapolis :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4); Jay D. White, *op. cit.*, p.169.

58) Jay D. White, *op. cit.*, p. 169.

59) 언어게임은 대화자들로 구성된 사회에 의미를 갖도록 말해지는 것이 허용된 규칙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규칙은 표준적일 필요도 없고 일반적일 필요도 없다. 대신에 이것들은 은밀한 또는 명시적인 접촉에 의해 정립이 되는 것이다.

60) 규칙이 게임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선형적이고 기술적인 게임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것들을 과학이라고는 하지 않는 것이다.

61) Jay D. White, *op. cit.*, p. 170.

62) *Ibid.*, p. 170. ; 여기에서 영어인 "grand narratives", 그리고 독일어인 "Große Erzaehlung"의 한국어 번역 '큰 이야기'는 리요따르의 글을 번역한 이현복의 것을 참조하였다. 행정철학이나 행정사상에서 이 용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다. 물론 '대답본'이란 말로 사용되고 있음을 명기한다.

리요따르(저) · 이현복(역), 「포스트모던적 조건 : 정보사회에서의 지식의 위상」(서울 : 서강사, 1992)

63) *Ibid.*, p. 170.

은 이야기들의 다원성만이 존재한다고 하였다.⁶⁴⁾ 따라서 부분적이고 작은 이야기들은 서로 간에 상충될 위험을 항상 안고 있으며 이런 이야기들은 사람들이 이를 창조해내는 것이라서 부서지기가 쉽다.

포스트모더니즘을 후기자본주의의 문화논리로 규정한바 있는 제임슨(Frederic Jameson)은 시간의 경험과 개인정체성(personal identity)과 관련지워서 리요따르가 그려낸 포스트모더니즘의 사회적 조건과 평행되는 두 가지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⁶⁵⁾ 하나는 서구학자들이 현재와 미래를 다루는데 있어 그들의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것을 ‘페스티쉬(Pastiche)’라고 명명하였는데 이것은 죽은 유형의 모방⁶⁶⁾이란 의미이다. 그가 사용한 한 예는 과거만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추억어린 영화와 함께하는 서구적 매력이다. 그의 두 번째 주장은 말과 언어를 완전하게 할 수 없는 라캉의 정신분열증에 대한 정의⁶⁷⁾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만약 리요따르가 사회적 수준에서 보는 사회적 분열이 언어의 수준을 제대로 만들어 주지 못할 경우 언어는 더 이상 친화적인 경험을 제공하지 못하며 결과적으로 정신분열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만약 라캉, 리요따르, 그리고 제임슨이 옳다면 포스트모던시대는 계몽주의에 의해 약속되어졌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미래를 보여줄 것이다.⁶⁸⁾ 제임슨 역시 지식의 이야기적 이론을 지지한다.⁶⁹⁾ 그가 믿기로는 이야기는 단지 문학유형만은 아니며 가장 기본적인 인식론적 범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모든 경험이 이야기로써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세계에 대한 인식과 느낌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서로 엮어 짜여짐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죽은 유형의 모방이나 정신분열증의 문제를 위한 교정 역시 과거, 현재, 그리고 가능하면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기꺼이 하려는데서 찾을 수 있다.

5. 현대행정학을 위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사상적, 이론적 그리고 방법론적인 함의⁷⁰⁾

앞에서 논의된 여러 견해들은 행정에 대해 흥미로운 질문과 도전을 던지고 있다. 이것들은 인식론적 문제에서부터 방법론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에 있어 행정의 역할에 대해서 그리고 행정 그 자체의 정체성과 국지적으로 서로 연결된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과업과 노력 등에 널리 걸쳐있다. 이것들을 종합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64) *Ibid.*, p. 170.

65) *Ibid.*, p. 171.

66) 김시완은 이것을 “흔성모방”으로 번역하고 있다. 딕킨스(David R. Dickens)와 폰타나(Andrea Fontana) 편·김시완 옮김, 「앞의 책」, 336, 357, 358면.

67) 라캉은 정신분열증적 경험은 일관된 연속성으로 연결되지 못한 소외되고 고립되고 불연속적인 물질 기묘들의 경험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Frederic Jameson, “Postmodernism and Consumer Society” in H. Foster (ed.), *Anti-Aesthetic* (Port Townsend, WA : Bay Press, 1983), p. 119.

68) Jay D. White, *op. cit.*, p. 171.

69) Frederic Jameson, *The Political Unconscious : Narrative as a Socially Symbolic Act* (Ithaca : Cornell University Press, 1981)

70) 여기에서 논해지는 포스트모더니즘과 현대행정학과의 사상적, 이론적, 방법론적 함의에 관한 논의는 화이트(Jay D. White)의 깊은 통찰력있는 이해와 설명이 담긴 아래 논문에 근거하고 있음을 밝힌다. Jay D. White, *op. cit.*, pp. 171-175.

첫째, 포스트모던시대를 맞이하여 행정학에 있어 사회, 과학, 그리고 정부에 관한 많은 지배적인 이론과 방법론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새롭게 쓰여져야 한다는 것이다. 후기실증주의는 1968년 9월에 윌도, 마리니(Frank Marini), 프레데릭슨(H. George Frederickson) 등에 의하여 개최되어 신행정학(new public administration)이란 새로운 행정학의 학문적 흐름을 탄생시킨 제1차 미노우브룩회의(Minnowbrook Conference)의 여러 주제중에 하나였으며 이것은 사회과학을 연구하는데 있어 가치중립적인(value-free and value-neutral) 실증적 접근을 거부하는 것이다. 비록 이 회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입장을 취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이 회의의 다른 주제들과 일치가 되었다.⁷¹⁾ 이 회의의 다른 주제는 행정이 사회적으로 적실성과 관련성을 가져야 하며 사회적 형평을 진작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런식으로 행정연구의 방향을 새롭게 잡게되면 어떻게 연구를 가치중립적으로 할 것인가를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논리실증주의로부터의 결별이 필요로 되었던 것이다. 규범적인 이론화와 실존적이고 현상학적인 연구로 1970년대와 1980년대의 문제들을 다루어야 한다는 요청이 제기되었던 것이다.⁷²⁾ 이 회의가 있은후 몇 년간 덴하르트(Robert B. Denhardt), 하몬(Michael M. Harmon), 훈멜(Hummel), 화이트(White) 등 몇몇 이론가들에 의해 논리실증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철학적 대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그들은 연구와 탐구를 위해 해석학적이고 분석비판적인 접근들을 제시하였으나 이러한 대안들은 1988년 9월에 개최된 제2차 미노우부록회의에서 광범위하게 논의되진 못하였다. 조직이론연구를 위한 기준으로써 “의사결정론”에 대한 하몬의 비판이외에는 제2차 미노우부록회의에서 후기실증주의이론개발을 이끌 그 어떤 것도 나타난 것이 없었다. 베일리(Mary Timney Bailey)가 보기엔 이렇게 복잡하게 얹힌 문제들은 “모든 문제의 해결은 그 자체로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낸다”는 얹힌 문제의 실타래를 놓게 하는 것을 보는 것 같았을 것이다.⁷³⁾ 가이(Guy)의 주장처럼 오늘날 행정은 이런 문제들을 풀려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 희망을 거의 가질 수 없을 정도로 서로 얹힌 동적이고 유동적인 문제들의 실타래에 직면하고 있다. 변화역군으로써 효과적일 것이라는 행정학자들의 능력에 관한 제1차 회의의 결과를 믿지 않는 참여자들 때문에 이런 느낌은 제2차 미노우부록회의에서도 다시 나타났었다. 논리실증주의에 대한 비판 그리고 얹히고 고인 문제들, 그리고 희망의 상실감 등은 모든 사회적 움직임이 이미 포스트모던시대로 접어 들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런 시대에선 과학이나 정부와 같은 기관이나 세도들이 그들이 가진 정통성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과학과 정부의 힘에 관한 이야기들은 더 이상 일반적으로 믿어지지를 않게 되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포스트모던시대를 맞이하여 사회, 과학, 그리고 정부는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1차 미노우브룩회의가 있은지 20여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배울 것이 있다면 사회, 과학, 그리고 정부에 관한 이야기들이 다시 쓰여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그 시대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임

71) *Ibid.*, p. 159.

72) Frank Marini, (ed.), *Toward a New Public Administration : The Minnowbrook Perspective* (San Francisco, CA : Chandler Publishing Co., 1971)

73) 제2차 미노우브룩회의를 회고하면서 베일리는 ‘1988년의 세상이 1968년과는 너무나 판이하게 다르고 복잡하다는 사실을 목격하였으며 1968년에 미노우브룩회의 참가자들과 많은 관련 인사들이 회의를 가졌던 시점에서 볼 때 역사상 가장 풍요롭고 부유하며 가장 선진화된 국가에서 풀리지 않을 문제가 있을리 없다고 굳게 믿은바 있었으나 1970년대와 80년대의 많은 사건들은 보다 새롭고 보다 정교하고 복잡한 문제들을 야기시킴으로써 이러한 믿음을 산산히 깨버렸다’고 주장하였다. Jay D. White, *op. cit.*, pp. 159-160.

에 틀림이 없다. 만약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식으로 다시 쓰여지지 않는다면 이론가들이나 행정실무자들에 의해 만들어질 이야기들은 진실되지 못하고 효과적이지 못한 행동들을 위한 기준으로 전락되고 말 것이다.

둘째, 포스트모더니즘적 시각에서는 행정학 역시 인간의 주관성을 간과한 구조주의가 지닌 맹점을 보완할 수 있는 지적 노력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구조주의는 파슨스(Talcott Parsons)의 사회학을 통해 행정학과 친숙하게 되었으며 체계이론을 사용하여 조직현상을 서술하고 설명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근자에 들어 비록 분석의 구조주의적 범주들과 체계이론의 개념들이 행정에 관한 가장 최근의 사상들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기는 하지만 구조주의적 시각에 대해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니다.⁷⁴⁾ 실버맨(David Silverman)은 구조주의와 체계이론이 유기적 은유를 사용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것들이 조직을 물화(物化; reification; verdinglichung)⁷⁵⁾시키는 경향을 키워준다고 비판한다. 그는 또한 이것이 조직의 주관적 신념, 가치, 그리고 의도가 그들 행동을 지도하는 존재인 인간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구조주의적 시각이 맹목적이 되는 현실이다. 하몬과 메이어(Richard T. Mayer)는 실버맨의 비판을 이어받아 조직의 물화는 조직활동이 개인행위자의 의미나 의도의 견지에서 완전히 이해될 수 있다는 생각을 무시했다고 주장한다. 이런 인간의 주관성을 구조주의가 간과했다는 것은 의도하지 못했던 결과는 아니다. 사회학, 심리학, 경제학, 그리고 정치학과 같은 현대의 많은 조직이론들 역시 성공적으로 인간주관성을 분해시키고 있다.

셋째, 포스트모더니즘적 시각에서는 행정학에 있어서 객관적인 검증절차를 거친 과학적 지식만이 다른 지식들에 비해 우월하다는 생각이 더 이상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점이다. 행정학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지식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개발되고 전수되었다. 가설들을 검증한 과학적 논문들을 비롯하여 사례연구, 행정이나 정책사건들의 기술 및 서술, 이런 분야의 역사적 해석, 연역적인 주장, 철학적 비평, 행정경험에 대한 개인적인 성찰 등이 모두 이에 포함될 것이다.⁷⁶⁾ 이야기하기는 기본적인 인식론적 범주라는 제임슨의 견해에서 본다면 어떤 유형의 지식이 행정에서 나타날 것인지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며 중요한 것은 이야기하기 그 자체이다. 원초적으로 이야기는 지식을 개발하고 전수하는 각개의 방법들에 동일한 지위를 부여해 준다. 어떤 지식유형도 이론형성과 문제해결에서 자의적으로 배제될 수 없으며 어떤 경우든 그 지위를 자의적으로 상승시킬 수도 없다. 따라서 과학적 지식이 문화적 지식보다 더 우월하다는가 하는 생각들은 이런 시각에서 볼 때 잘못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만약 실증주의자들이 문화과학에서 기꺼이 배우려 한다면 그들은 과학의 논리를 보다 확고한 반석에 올려 놓을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은 행정학에도 그대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각개 분야에서 개발된 많은 지식은 정책결정자에게 충고(advice)를 하기 위한 것으로써 의도된 것이다. 따라서 포스트모던적 시각에서 볼 때는 정책분석도 과학적 객관주의나 실증주의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이야기하기와 독해기술도 병행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런 객관성과 규범성이 잘 어우러진 정책적 충고가 훌륭한 정책결정을 낳게

74) *Ibid.*, pp. 166-167.

75) '물화'란 어떤 사물이나 본질이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바깥으로 나감으로써 본래적인 것으로부터 낯설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주관철학에선 소외성을 의미하기도 하며 시장경제적 시각에선 생산과정에 투여된 본래적 인간의 가치가 인간성을 말살하는 방향으로 전향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철학사상연구회 편, 「철학대사전」(서울 : 동녘출판사, 1989)

76) *Ibid.*, p. 172.

된다는 점이다. 레인(Martin Rein)이 주장했듯이 충고는 연구자가 객관적이고 규범적인 의미를 모두 가지는 이야기를 함께 엮어낼 수 있을 때에 의미를 갖게 된다.⁷⁷⁾ 그는 과학의 순수모형도 그리고 응용모형도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정책결정이 필요로 하고 또 요구하는 지식의 유형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관찰함에 의해 정책분석에 있어서 사실과 가치의 역할에 관한 오랜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그가 보기에는 정책분석의 특징은 이야기하기를 포함해서 충고를 하는 것이며 이야기들은 일반적 법칙이 아닌 행동을 위한 규범적 함의를 가진 복잡한 형태의 사건을 해석해 주는 일을 하는 것이다. 물론 이야기하기는 정책분석반으로 국한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규범적 숙고나 충고를 주는 것은 일반적으로 행정에 중심이 되는 것이다.⁷⁸⁾ 제임슨이 주장하듯이 세계의 경험은 이야기를 통해서 나타난다. 훌륭한 연구자들은 엄격한 경성자료(hard data)⁷⁹⁾만을 가지고 단순하게 연구의 결과로 제시하시는 않는다. 대신에 그들은 의도된 청중들에게 자료나 발견의 의미와 유용성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반대편에 서있는 독자들은 자료, 새로운 사실의 발견 그리고 저자의 이야기들을 그들 자신의 이야기로 다시 엮어서 그들이 믿고자 하는 바나 행하고자 하는 바대로 재구성을 한다. 훌륭한 이야기하기와 훌륭한 독해기술들은 모든 유형의 지식개발과 이를 행정에 응용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다섯째, 포스트모더니즘적 관점에서 이제 행정학의 이론과 방법론들도 이야기하기와 연관지워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행정현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설명을 찾아내려는 지적 노력을 위해 이야기와 깊은 관련을 지니는 해석과 비판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행정에 있어서 대부분의 많은 지식들은 출판된 논문이나 학위논문들의 대부분에서 나타나듯이 이야기적 지식의 범주로 귀착된다. 이것들은 사례연구, 행정 및 정치적 사건의 기술 및 서술, 논리적 주장, 그 학문분야의 역사나 미래의 해석 등을 포함하지만 이런 연구유형들은 실증주의자들에 의해 혼란이 되었으나 후기구조주의자들과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이것에 과학적 연구와 똑같은 지위와 자격을 부여해 주었다.⁸⁰⁾ 보다 깊은 수준에서 후기실증주의자들은 과학적 지식조차 이야기하기적인 기준을 가져야 하고 자연·과학적 탐구가 최근의 문화과학의 연구개발과 발맞춰 재구축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행정학의 많은 지식들도 이야기적 지식의 범주로 귀착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행정학에서 많이 활용되는 방법론적인 원리를 역시 이야기하기에 대한 연구를 이끌 필요가 있다.⁸¹⁾ 관심과 주의는 어떻게 좋은 이야기를 할 것인가와 이야기하기의 결론이 어떻게 날 것인가에 경주되어져야 한다. 이야기 지식을 위한 적절한

77) *Ibid.*, p. 172.

78) 사이몬(Herbert A. Simon)은 응용사회과학은 규범적인 요소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정책과 행정에 중심이 되는 설계과정에 대한 그의 논의에서 그는 응용공학모형(applied-engineering model)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선 그리고 가능시키기 위해선 어떻게 일을 하여야 하는가 하는 식의 규범적 질문을 내포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매우 혐의적인 행정과 정책분석의 규범적 차원에 대한 견해를 나타낸 것이다. 사이몬은 주어진 목표와 목적들을 성취시키는 범위에서만 규범적 지식과 유추를 인정하였다. 레인(Martin Rein)은 규범적 관심이 목표나 목적의 성취에 들어간다는 것에 놓의한 반면, 그는 분식이나 의사결정자들이 여러개의 경합되는 공공행정의 목적과 목표를 가운데 선택을 이끌어내는 가치적 과정의 논리를 설명하는데 더 관심을 기울였다. 이러한 논리는 목적이나 목표를 선택하기 위한 해석적이고 비판적인 접근을 내포한다. 사이몬은 설계과정은 일상적으로 선언하는 논리의 적절한 채택만을 요구한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그는 레인이 정책분석의 논리를 설명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한 실증적인 입장을 견지한다.

79) 가치가 배제된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자료를 의미한다.

80) *Ibid.*, pp. 172-173.

81) *Ibid.*, p. 173.

표준이나 기준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규칙들은 외연적이고 선형적이고 그리고 기술적인 언어계임이 연구를 위해 적절한 것인지가 밝혀지고 검증되어질 때 수용되어야 한다. 행정학과 관련된 지식개발에서 이야기하기를 중시해야 하는 이유가 두가지 있는데 하나는 해석(interpretation)이고 다른 하나는 비판(critique)이다.⁸²⁾ 이야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보다 더 잘 감지하게 해준다. 이야기는 또한 어떻게 일이 되어 나가는지에 대한 미래적 비전을 제시해 주기도 한다. 또한 이야기는 만약 그들이 그것들을 변화시키려는 방법대로 행동을 한다면 그들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대안적 이미지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야기는 또한 특별한 상황을 변화시키는데 있어 어떤 행동이 가장 효과적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도 있다. 이야기하기를 통해 해석과 비판은 사회적 변화를 결과할 수 있다. 행정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시도로써 나타나는 지적 노력에 대해 끊임없는 해석과 비판을 통해 행정현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설명을 찾아가며 또한 이러한 노력을 통해 행정적 변화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여섯째, 행정을 이끄는 이야기는 포스트보더니즘적 견지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신념을 형성하고 행동을 이끄는데 있어 가장 두드러진 이야기는 행정을 엽관제(spoil system) 등에 의해 오염된 정치로부터 분리해 내어야 한다는 정치·행정이원론(politics-administration dichotomy)과 사회적 형평(social equity)을 강조한 신행정학이다.⁸³⁾ 정치·행정이원론에 내재하고 있는 기술적인 합리성은 관료적 행정국가와 함께 근대사회의 발전을 지지했으나 이런 이야기는 포스트보더니즘과는 모순될 수 밖에 없다. 정말로 모더니스트들과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서로 유사하게 과학과 행정국가에 대한 환멸과 각성의 결과로 사회에 대한 기술적 합리성의 소외적이고 불화적인 효과에 비판적이다.⁸⁴⁾ 신행정학의 주요주제의 몇몇은 현대성에 대한 계몽주의적 전제나 약속과 일치가 된다. 사회의 여러 문제들은 이성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낙관주의적 믿음이 있었다. 그리고 또한 행정가들이 사회적 형평을 진작시킴으로써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내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낙관론도 있었다. 신행정학의 다른 주제는 포스트보더니즘의 요구와 밀접한 관련성을 짓고 있다. 특히 후기실증주의의 주제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정치·행정이원론이나 신행정학 그 어떤 것도 행정의 모든 것을 위한 빛음이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큰 이야기의 지위를 결코 차지할 수 없었다. 부분적이고 작은 이야기로써 누구에 의해서는 수용이 되었지만 다른 누구에 의해서는 비판받고 배척되었다.

일곱째, 부분적이고 작은 지식은 국지적인 문제들을 푸는데 적절하다.⁸⁵⁾ 국지적인 문제는 정부의 지역적 수준에서 일어나는 문제이어야만 할 필요는 없다. 포스트보던시대에 있어서 국지적 문제의 해결은 조그만 문제들이 부분적이고 작은 지식을 사용해 한번에 한 개씩 해결되듯이 증가되고 있다. 예를 들면 높은 이직률을 경험하고 있는 주정부기관은 국지적 문제이다. 이것은 즉각적으로 기관밖의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관의 관리

82) 해석과 비판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가다머(Gadamer)와 하버마스(Habermas)간의 논쟁이 있다. 가다머는 비판을 해석의 결코 끝이 없는 과정에 있어 한 요소로 생각한다. 혼란하는 해석이 변경될 때, 그리고 이해를 더 증진시키도록 변할 때 이것은 중요한 순간이 된다. 하버마스는 사회변화를 위한 중심 요소로서 비판을 원한다. 그는 해석은 보수적이고 현상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느낀다.

83) Ibid., p. 173.

84) Michel Foucault, *Power/Knowledge : Selected Interviews and Other Writings, 1972-1977*, Edited by Colin Gordon (New York : Pantheon Books, 1980)

85) Jay D. White, *op. cit.*, p. 174.

자와 직원들에 의해 인지된다. 문제를 풀기위해 요구되는 지식 역시 부분적이고 작다. 이직에 대해선 위대한 이론이 없으며 단지 부분적이고 작은 이론만 있을 뿐이다. 문제는 직업에 대한 불만 혹은 낮은 조직 참여 및 몰입, 혹은 직무스트레스 혹은 과도한 업무량, 혹은 업무로 인한 탈진 등에 의해 결과된다. 문제는 하나 혹은 그 이상 몇 개의 부분적이고 작은 이론을 사용해서 혹은 실증주의과학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사례연구나 행정적 묘사나 기술 등으로 이야기되어지는 다른 기관들의 경험을 활용해서 해결 할 수 있다. 단일기관에서 이직률의 문제의 해결은 제1차 미노우브록회의에서 몇몇 회의참여자들에 의해 이상화된 전법위를 포괄하는 문제해결유형은 아니다. 오늘날 문제해결의 보다 전형적인 유형은 제2차 미노우브록회의의 참여자들이 제시한 유형이다. 행정의 과업은 사회적·심리적 분열을 가져올 무의미성을 회피하기 위해 다양한 국지적 문제들에 관한 부분적이고 작은 이야기를 개발해 내는 것이다. 오늘날과 같이 문제들이 복잡하게 얹혀있는 상황에서 국지적 문제들의 상호연계성은 전체로서 행정의 보다 큰 의미를 지속시키기 위해 규명되어져야 한다. 그런 것 중에 한예가 비행청소년집단이다. 비행청소년집단은 공공의 안녕과 법집행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빈곤, 변화될 것 같지 않은 하층계급의 출현, 마약밀매와 복용, 부적절한 교육, 경제적 기회의 상실, 비참한 주거 등 이루헤아릴 수 없는 문제들과 연계가 되어있다. 이와 같은 비행청소년집단과 같은 문제는 위대한 이론 하나만으로는 접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런 위대한 이론은 없기 때문이다. 문제를 풀기위한 노력은 위대한 한 개의 이론이 아니라 이런 문제들과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연관을 짓고 있는 다양한 복합적 작은 부분 이론들을 사용하는 것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여기에서 논의하고자 한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행정의 큰 이야기의 개발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효과적인 행동을 위한 기반이 되어 줄 의미있는 믿음과 신념을 전달해주고 사회의 상호연계된 국지적 문제를 가로지르는 상호연계된 부분적이고 작은 이야기의 개발이 필요로 된다는 것이다. 오늘의 행정이론은 미국행정사상이나 철학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때 까지는 혼동스럽고 복잡하고 해결되지 않는 어려운 상태로 남아있을 것이다. 미국관료조직이라는 거대한 체계를 직접 운영하고 연구하는 많은 관료들이나 이 분야의 학자들이 제기하는 도전들은 행정학이론분야에서 모든 것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위대한 이론(overarching theory)⁸⁶⁾이나 최상의 방법이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경합되고 있는 이론들 그리고 혼동스런 모형들 그리고 상호모순되는 접근법들을 자신들의 처지에 맞게 뛰어 맞출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⁸⁷⁾

6. 글을 마무리하면서

현대 과학철학에서의 방법론 논쟁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작인 동시에 좌절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포스트모더니즘이 주도하는 세계속에서 토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86) 이것은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이 비판하는 큰 이론(grand theory)과 매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87) Richard J. Stillman II, "The Future of American Public Administration Theory : A Dialectic among Competing State Visions?", in Richard J. Stillman II, *Preface to Public Administration : A Search for Themes and Direction* (New York : St. Martin's Press, 1991), p. 222.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이 인간의 이성과 과학의 무한한 힘을 믿던 데카르트이후의 근대적 세계관이 무너짐으로써 그 부산물로 남은 인류 종말의 징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게 한다. 불확실성의 시대, 두려움과 불안, 부조리와 혼란, 무의미, 무질서, 성의 해방, 우연성, 자아상실, 정신분열, 권태, 구원자의 부재와 같은 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해서 포스트모더니즘이 말해 주는 바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의 발상이 현대가 안고 있는 여러 모순들에 대한 직접적 반응이고 오늘날 자본과 기술 그리고 과학의 힘으로 세계의 구석구석을 하나의 세계로 만드는 과정에 대한 지향에서 비롯되었다고 이해한다. 그리고 이는 흔히 포스트모던의 문제들로서 표상되는 과학적 다원주의, 차이성, 비동시성(Umgleichzeitlichkeit)⁸⁸⁾, 탈중심화의 원리 자체에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며, 그 결과 비동시성적 저항이라는 포스트 모던의 정치학도 도출되는 것이다.⁸⁹⁾ 한편 후기현상학과 해석학, 언어분석철학과 후기구조주의 그리고 니체의 비합리주의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 등이 어우러져서 지금까지의 모든 합리성 체계를 해체하려는 시도가 제기되었는데 이러한 시도는 전통적인 서구의 과학철학에서 끊임없이 추구하고 체계화하려고 고심하였던 합리성의 기준이 기실 권력의 존적이고 조작적이었다는 사실의 폭로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리하여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큰 이야기가 몰락한 자리를 부분적이고 작은 이야기들로 대체하려고 한다. 그들은 합리성 대신에 비합리성을 일치나 통일성보다는 불일치와 차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큰 것과 작은 것, 다수와 소수의 불일치는 상정 할 수 있지만 바로 그 소수의 의견이 통일되는 근거는 그들만의 작은 합의라는 사실을 시각하지 않을 수 없다.⁹⁰⁾ 그리하여 우리는 부분적이고 작은 이야기라고 해서 합리성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으며 여기에서 또 다시 포스트모던 가운데서의 모던적 축면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이 현대행정학에 던져주는 사상적, 이론적, 방법론적인 함의는 다양하고 진지하다. 이미 앞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듯이 우선 포스트모던시대를 맞이하여 행정학도 사회, 과학, 그리고 정부에 대한 많은 기존의 지배적인 이론과 방법론에 관련된 지적 노력들을 새롭게 써야한다는 화두를 던져주고 있다는 점에 유념을 하여야 한다. 변화되어진 시대에 맞는 새로운 행정학적 패러다임이 필요로 되는 이유인 것이다. 둘째, 포스트모더니즘적 시각에서는 다른 여타학문과 마찬가지로 행정학 역시 인간의 주관성을 간파한 구조주의가 지난 맹점을 보완할 수 있는 지적 노력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포스트모더니즘적 시각에서는 행정학에 있어서 객관적인 검증절차를 거친 과학적 지식만이 다른 지식들에 비해 우월하다는 생각이 더 이상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점이다. 문화과학이 가지는 강점과 장점이 있는 이상 그리고 과학성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변환이 요구된다는 관점에서 볼 때 행정학의 문화규범적 지식창출도 과학적 지식 못지않게 학문적 우월성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넷째, 각개 분야에서 개발된 많은 지식은 정책결정자에게 충고를 하기 위한 것으로써 의도된 것이기 때문에 포스트모던적 시각에서 볼 때는 정책분석도 과학적 객관주의나 실증주의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이야기하기와 독해기술도 병행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정책적 충고가 훌륭한 정책결정을 낳게 된

88) 동시성이란 같은 시점, 같은 장소에서 일어나는 것을 관찰하는 것을 의미하나 비동시성은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시간성이 달라짐으로 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관찰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현재 교실의 책상에 앉아서 과거의 추억을 회상하는 것도 비동시적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89) 김성기, 「포스트모더니즘과 미관사회과학」(서울 : 문학과 지성사, 1991), 39면.

90) 김진, 「철학의 현실문제들」(서울 : 철학과 현실사, 1996), 321-322면.

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다섯째, 포스트모더니즘적 관점에서 이제 행정학의 이론과 방법론들도 이야기하기와 연관지워 연구가 이루워져야 하며 행정현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설명을 찾아내려는 지적 노력을 위해 이야기와 깊은 관련을 지니는 해석과 비판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여섯째, 행정을 이끄는 이야기는 반드시 포스트모더니즘적 견지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신념을 형성하고 행동을 이끄는데 있어 가장 두드러진 이야기는 정치·행정이원론과 신행정학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적 사고에서는 정치·행정이원론이나 신행정학 그 어떤 것도 행정의 모든 것을 위한 믿음이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큰 이야기의 지위를 결코 차지할 수 없다. 그것이 가지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위대한 믿음을 부여함으로써 이야기하게 된 문제는 실로 많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큰 이야기가 갖는 낙관적 견해를 지양하고 새롭게 대두되는 문제의 해법을 얻기 위한 부분적이고 작은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일곱째, 부분적이고 작은 지식은 국지적인 문제들을 풀는데 적절하다.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은 위대한 한 개의 이론이 아니라 이런 문제들과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연관을 짓고 있는 다양한 복합적 작은 부분 이론들을 사용하는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의 일반적 사고이며 그런 맥락에서 그들은 행정의 큰 이야기의 개발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시대에 있어 행정학도 효과적인 행동을 위한 기반이 되어 줄 의미있는 믿음과 신념을 전달해 줄 수 있고, 사회의 상호연계된 국지적 문제를 가로지를 수 있는 상호연계된 부분적이고 작은 이야기의 개발에 박차를 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유념하여야 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이 현대행정학에 주는 이러한 여러 합의들은 아직 일반화시킬 수 있는 단계로 까지는 발전되어 있지 못하지만 현대행정학이 새로운 학문적 지평을 펼쳐 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방향타로써의 의미는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새롭게 풍미되고 있는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적용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현대행정학도 새로운 학문적 패러다임의 구축에 포스트모더니즘적인 사고와 지적 노력들을 전향적이고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학문적 포용력과 여백을 마련하는데 인색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포스트모더니즘이 한 시대의 사조를 반영하는 찰라적 학문유형으로 끝나버릴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유의미한 것이라면 현대행정학에 조화롭게 접목을 시켜볼일이다. 그리고 그것의 결과는 앞으로 후속되는 연구들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어야만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택영. (1994).『포스트모더니즘이란 무엇인가 : 자연주의에서 미니멀리즘까지』, 서울 : 민음사.
- 김성기. (1991).『포스트모더니즘과 비판사회과학』, 서울 : 문학과 지성사.
- 김욱동 편. (1994).『포스트모더니즘의 이론』, 서울 : 민음사.
- 김욱동 편. (1993).『포스트모더니즘의 이해』, 서울 : 문학과 지성사.
- 김진. (1996).『철학의 현실문제들』, 서울 : 철학과 현실사.
- 김채수. (1994).『방법론과 과정학』 서울 : 세손출판사.

- 김채수. (1996). 『21세기 문화이론 과정학』, 서울 : 교보문고.
- 데이비드 R. 딕킨스 · 앤드레아 폰타나(편) · 김시완(옮김). (1996). 『포스트모더니즘과 사회논쟁』, 서울 : 현대미학사.
- 디킨스(David R. Dickens)와 폰타나(Andrea Fontana) 편 · 김시완 옮김. (1996). “사회과학에서 포스트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과 사회논쟁』, 서울 : 현대미학사.
- 리요파르(저) · 이현복(역). (1992). 『포스트모던적 조건 : 정보사회에서의 지식의 위상』, 서울 : 서강사.
- 안드拉斯 게도 외 지음, 김경연 · 윤종성 편역. (1992). 『포스트모더니즘의 도전』, 서울 : 다민.
- 안석교. (1990). 『현대사회과학의 방법론』, 서울 : 한길사.
- 안토니 기든스 지음, 김미숙 외 공역. (1997). 『포스트모더니티』, 서울 : 민영사.
- 오스발트 슈팽글러 (저) · 박광순 (역). (1995). 『서구의 볼락』, 서울 : 범우사.
- 윤호병 외. (1992). 『후기구조주의』, 서울 : 고려원.
- 이윤희 · 이현희 역. (1991). 『포스트모더니티』, 서울 : 민영사.
- 정정호 · 강내희 편. (1990). 『포스트모더니즘론』, 서울 : 도서출판 터.
- 차인석 외. (1993). 『사회철학대계 3 : 사회원리에 관한 새로운 모색들』, 서울 : 민음사.
- 프랑수아 도스 지음, 이봉지 등 옮김. (1998). 『구조주의의 역사』, 서울 : 동문선.
- 한국철학사상연구회 편. (1989). 『철학대사전』, 서울 : 동녘출판사.

Bailey, Mary Timmey and Richard T. Mayer (eds.). (1992). *Public Management in an Interconnected World : Essays in the Minnowbrook Tradition*, New York : Westport, Connecticut : Greenwood Press.

Baudrillard, Jean. (1983). *In the Shadow of the Silent Majorities*, New York : Semiotext.

Bell, Daniel. (1973).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New York : Basic Books.

Bennis, Warren G. and Philip E. Slater. (1968). *The Temporary Society*, New York : Harper & Row.

Derrida, Jacques. (1991). *A Derrida Reader : Between the Blinds*, Edited by Peggy Kamuf,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Derrida, Jacques. (1981). *Dissemination*, Translated by Barbara Johnson,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Derrida, Jacques. (1978). *Writing and Difference*, Translated by Alan Bass,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University.

Derrida, Jacques. (1976). *Of Grammatology*, Translated by Gayatri Spivak, Baltimore, MD :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Drucker, Peter. (1969). *The Age of Discontinuity : Guidelines to a Changing Society*, New York : Harper & Row.
- Feyerabend, Paul. (1975). *Against Method : Outline of an Anarchic Theory of Knowledge*, London : Verso.
- Foucault, Michel. (1980). *Power/Knowledge : Selected Interviews and Other Writings, 1972-1977*, Edited by Colin Gordon, New York : Pantheon Books.
- Frederickson, H. George. (1973). *Neighborhood Control in the 1970s*, New York : Chandler Publishing Co.
- Fromm, Erich. (1955). *The Sane Society*, New York : Rinehart & Company, Inc.
- Galbraith, John Kenneth. (1977). *The Age of Uncertainty*, Boston, Mass. : Houghton Mifflin Company.
- Harvey, David. (1989).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 Oxford, England : Basil Blackwell.
- Jameson, Frederic. (1983). "Postmodernism and Consumer Society" in H. Foster (ed.), *Anti-Aesthetic*, Port Townsend, WA : Bay Press.
- Jameson, Frederic. (1981). *The Political Unconscious : Narrative as a Socially Symbolic Act*, Ithaca : Cornell University Press.
- Karl, Barry D. (1983). *The Uneasy State : The United States from 1915 to 1945*, Chicago, Ill. : Chicago University Press.
- Kuhn, Thomas S. (1977). *The Essential Tension*, Chicago, Il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uhn, Thomas S. (1962).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 Chicago, Il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acan, Jacques. (1977). *Ecrits*, Translated by Alan Sheridan, London : Tavistock.
- Lacan, Jacques. (1968). *The Language of the Self : The Function of Language in Psychoanalysis*, Translated by Anthony Wall, Baltimore, MD :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Lakatos, Imre. (1970). "Falsification and the Methodology of Scientific Research Programmes", in Imre Lakatos & Alan Musgrave (eds.), *Criticism and The Growth of Knowledge*, Cambridge,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Lyotard, Jean-Francois. (1984). *The Postmodern Condition : A Report on Knowledge*, Translated by Geoff Bennington and Brian Massumi, Minneapolis :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Mandel, Ernest. (1978). *Late Capitalism*, London : Verso.

Marini, Frank. (ed.). (1971). *Toward a New Public Administration : The Minnowbrook Perspective*, San Francisco, CA : Chandler Publishing Co.

Stillman, Richard J. II. (1991). "The Future of American Public Administration Theory : A Dialectic among Competing State Visions?", in Richard J. Stillman II, *Preface to Public Administration : A Search for Themes and Direction*, New York : St. Martin's Press.

Toffler, Alvin. (1970). *Future Shock*, New York : Random House.

Waldo, Dwight. (1980). *The Enterprise of Public Administration*, Novato, CA : Chandler & Sharp.

Waldo, Dwight. (1971). *Public Administration in a Time of Turbulence*, San Francisco, CA : Chandler Publishing Co.

White, Jay D. (1992). "Knowledge Development and Use in Public Administration : Views from Postpositivism, Poststructuralism, and Postmodernism", in Mary Timmey Bailey, and Richard T. Mayer (eds.), *Public Management in an Interconnected World : Essays in the Minnowbrook Tradition*, New York : Westport, Connecticut : Greenwood Press.